

‘Envy’ 등은 신품종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이 재식되고 있다. 이 품종들의 대륙간 보급을 위해서 AIGN, INN 같은 폐쇄적인 단체가 결성되어 이뤄지고 있다. 특히, INN(International New Varieties Network)은 북미,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륙별로 1~2개의 주요 업체가 결성한 것으로 신품종에 대한 전세계 보급 통로로 활용을 하고 있다(www.nuserynet.com, 2016). 그러나 자기 대륙에서는 해당 업체가 INN의 협력 품종을 독점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외국에서 육성된 신품종 중에서는 스위스 NFG社의 속붉은사과 품종 ‘Redlove’ 등 3품종이 국내(충남 예산)에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다(www.nextfruitgeneration.nl, 2016). 뉴질랜드 P&F社의 ‘Env’, ‘Jazz’가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다(www.plantandfood.co.nz, 2016). 일본의 나가노현 시험장은 향기와 육질이 좋은 후지나가후 2를 육성하였다. 일본 아오모리사과시험장은 ‘순메이21’ 등 2품종, 벨기에 3betterfruit社는 ‘니코그린’ 등 2품종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 중에 있다(www.seed.go.kr, 2014). 신슈대학에서는 과육이 빨간 작은 사과 ‘허니루즈’와 생력적 초밀식 재배가 가능하며 과육이 연한 빨강인 조생종 품종이며 과실의 크기가 100g 정도로 작은 품종인 ‘카라무나루쥬’와 과중이 200g 정도의 중간크기로 통째로 먹기에 적당하며 당도가 높은 ‘허니레드’ 등 품종을 육성하였고 중국의 요녕성 과수연구소에서 육종한 ‘망산홍’은 저장성이 좋으며 내병성이 강한 조생종 신품종으로 과육은 담황색이며 과즙이 비교적 많으며 당도가 15.3%로 높고 내한성이 높은 중과형 품종이다. 품종의 적응성 검정을 위해 유럽에서는 EU회원국간 유럽 전역에서 시험을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P&F社는 뉴질랜드 전역에서 시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내외 육성 품종에 대한 광지역 적응테스트(NC-140 project) 결과로 품종을 보급하고 있다(www.nc140.org, 2016). 특히 일본의 경우 새로운 품종의 도입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후지뿐만 아니라 코교쿠(紅玉), 슈코(秋香), 메구미, 무쓰 등의 품종들을 수출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발된 ‘크립스 핑크(Crips Pink)’ 라는 품종은 ‘핑크레이디(Pink Lady)’ 라는 상표로 사과 마케팅 클럽제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모리노카가야키’ 품종은 중생종으로 생력 재배가 가능한 황색품종으로 일본의 고령화에 대응한 생력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며 기존 후지 품종과의 수확기가 달라 노동력의 분산이 가능하여 농가 확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이와테현의 JA이와테 중앙 사과부회는 해외에 조생종 품종부터 만생종 품종까지 릴레이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태국 등으로 수출 판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생 및 중생종 품종에 에틸렌 발생을 억제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1-MCP 훈증처리를 하고 수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의 판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